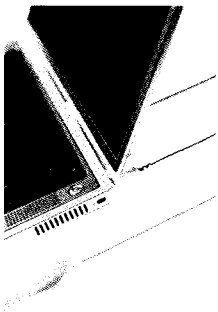




— 조합 · 업계소식 [www.kcca.or.kr](http://www.kcca.or.kr)



- 유로칸, 골판지원지공장 폐쇄 발표
- (주)코르피아, 원지 수입 계획
- 오랜만에 골판지 수요가 넘친다.
- 전격 골심지 인상폭 완화, 박수 받아 충분합니다.
- 정우택 충북지사, 조은포장 방문 격려
- 골판지포장 관련 3개 조합 전무이사 회의
- 골판지포장기술 과제발굴연구회 출범
- 골판지포장업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상자수요업계 협조 요청
- 국제 펄프가격 지속 상승

## 유로칸, 골판지원지공장 폐쇄 발표

크라프트라이너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수입라이너지 공급업체인 유로칸이 영구적으로 공장폐쇄를 발표했다. 이회사가 지난 2009. 10. 28일 공표한 발표문에 따르면 연간 45만톤 생산하는 라이너지공장과 크라프트지 공장을 2010년 1월 31일자로 영구적으로 폐쇄하면서 535명의 종업원과 그 가족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유로칸은 40년의 역사를 갖고 연산 335천톤의 크라프트 라이너와 연산 115천톤의 크라프트지를 생산 공급해 왔으나 그동안 고비용 구조와 비관적인 비전을 안고 있었다. 공장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그동안 공급받아 왔던 저렴한 우드칩의 공급량은 줄고 고가의 외부우드칩공장의 존도가 높아져 현재 20%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 공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경제위기, 캐나다 달러강세 및 경쟁국의 저가공세 등에 영향을 받아 2008년 12월 이후 순매출이 약40% 감소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 유로칸의 재무제표는 2009년 3분기 자산손실 1억 3천 8백만 달러에 달하게 되고 향후 7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점유율을 갖는 수입지 공급이 급작스럽게 중단됨으로서 수입지 사용 등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유로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GP, KENZ 등의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 코르피아에서는 GP(조지아 퍼시픽) 생산, 크라프트 라이너를 지난 9월부터 골판지포장업체에 수입 공급하고 있다.

## (주)코르피아, 원지 수입 계획

(주)코르피아에서는 KLB를 수입하여 업계에 공급할 계획이다. 코르피아는 그동안 우체국택배상자 공급 및 옥수수전분의 수입 공급을 주로하여 왔으며, 취급품목의 확대 정책으로 스릿터 칼날을 공급한데 이어 공업용 랩과 양면테이프등을 시중가격에 비하여 10%이상 저렴하게 공급하여 왔으며, 이번에 국산 KLB에 비하여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갖춘 라이너를 수입하여 업계에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원지가격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을 갖고있다. 이에 대하여 코르피아 명예연 차장은 “국산 KLB의 품질보다 월등한 미국 GP사(Georgia Pacific)제품으로 공장도착도로 톤당 460달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1차적으로 175g 205g지종을 수입하면서 상황에 따라 지종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주)코르피아 031-319-3308 명예연 차장

## 오랜만에 곽판지 수요가 넘친다

곽판지원지 가격이 지난 8월 하순 일제히 인상하면서부터 원지 수급이 매우 어렵게 되고, 이 시점부터 곽판지 및 곽판지상자 수요가 점증하게 되었다. 9월 둘째 주를 맞는 현재 업체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곽판지원지는 지폭에 따라 월폭등이 생길 정도로 수급이 원활치 못하고, 대체적으로 4~5일간의 물량이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곽판지원단과 상자 가격이 오르기 직전에 미리 발주하기 때문에 가수요가 몰리는 현상이라 하고, 일부는 중추절을 앞둔 수요 증가라는 평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요인이 있는 걸까.

곽판지원단은 지난 9월 1일자 또는 2, 3일자로 거의 인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오르기전 가수요라는 요인은 아닌 것 같고, 둘째 주까지도 수요가 4~5일 초과 적체된 것으로 볼 때 중추절 특수라는 평가가 보다 정확한 판단일 것으로 보지만, 그렇더라도 상당한 수요 초과 현상이다. 지난해 추석 이후부터 불기 시작한 세계적 경기 위축은 정확히 1년이 경과 했음에도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곽판지포장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보합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왔다는 점이 그 반증이다.

그렇다면 도드라지는 초과 수요 현상은 무엇일까?

## 전격 곽심지 인상폭 완화, 박수 받아 충분합니다

곽심지의 인상된 가격이 38만원으로 지난 8월 중순부터 기정사실화되었으나 신대양제지 측은 2만 5천원 인하 조정된 355천원으로 SK180은 455천원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전격 발표하였다. 물론 다른 제지회사들은 이러한 전격적인 발표에 적이 당황했을 것이지만, 전문 곽판지포장업계는 그나마 다행스럽기이라며 놀란 가슴 다독이고 있을 것이다. 지난 8월 한달 동안 지속된 곽심지 가격 40%이상 인상이라는 소식은 곽판지포장업계 지함업계 모두에게 상당한 상처를 안겨주었었기 때문이다.

작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개업종 상생협력 협약서를 체결한 이래, 적어도 원만한 대화 분위기는 이어져 오고 있었던 터에 느닷없는 가격 폭등은 황망스럽기 이를 데 없는 일이 아닐 수 없

었다. 40%이상 인상 발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골심지업계의 입장에서는 원료가격의 폭등이 부른 불가피한 일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다수 수요자들에게 제품을 팔아야 하는 골판지포장 및 지함업계의 입장에서는 연동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경영상의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그만큼의 걱정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절박성 때문에 우리조합은 골심지 가격의 적정인상론을 얘기하며 끈질기게 대화를 이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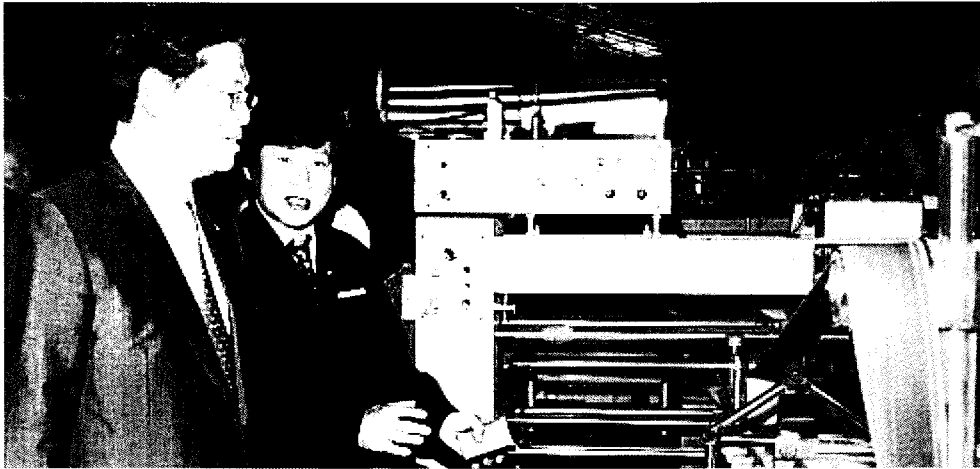
제지업계의 입장에서는 과당경쟁에 따른 후유증으로 전고점 대비 40%이상 인하된 상황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 강행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고, 이점에서는 가격의 큰 폭 인상이 공감할 수 있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영환경이 열악하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골판지나 지함업계는 원자재 가격의 인하는 고스란히 제품가격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 원자재가격의 인하는 곧 수익성 악화를 가져다 주는 만큼 원자재가격 인하현상을 결코 반길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이런 이유로 골판지포장업계는 지속적으로 원지가격 안정화를 줄기차게 요구하였으나, 여러 복합요인으로 지난 3월 이후 급격히 원지가격이 하향화되면서 급작스런 역전현상을 걱정해 왔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와보니 받아들이기가 여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지함업계의 반발과 지방 전문 골판지포장업계의 반발에 이은 골판지포장조합에 대한 성토 등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압박감으로 작용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관 3개 조합 전무이사가 회동하게 되고, 다시금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순간에 제지조합 이사장이면서 한국 골심지 시장의 최대주주로서 다른 골심지업계의 입장을 최우선 살펴야 할 입장임에도 골판지포장업계와 지함업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게 되었다. 쉽지 않은 결단으로 골판지포장업계의 고민을 풀어 주신 당신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정우택 충북지사, 조은포장 방문 격려

정우택 충북지사는 22일 음성군 대소면에 위치한 조은포장(대표 이기완)을 방문해 현장여론을 수렴했다. 정 지사는 이날 기능성 골판지와 상자, 쇼핑백 등을 생산하는 조은포장 생산현장을 돌아 보고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화를 나눴다. 정 지사의 이날 방문은 9월 기업방문의 날(We-sweet day)을 맞아 기업체 임·직원과 노동조합 관계자를 만나 노고를 위로하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정책 소개를 비롯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또 정 지사의 방문은 이 공장이 2000년 설립된 이래 충북의 향토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노력하고 있고 지난 6월 공장 측의 방문 요청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한편 조은 포장은 11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286억원의 연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또 2003년 ISO9001 인증을 받았고 2006년과 2007년에는 기술혁신기업 인증과 일류벤처기업으로 선정됐다.

▶ 출처 : (뉴시스, 2009년 9월 22일)

## 골판지포장 관련 3개 조합 전무이사 회의

지난 9월15일 골판지포장조합과 지합조합 제지조합 전무이사들이 모였다.

최근 지합조합 긴급이사회에서 골판지원지 및 골판지가격 인상폭이 매우 높아 경영상 애로를 받을 수 있음을 감안 상생협력 차원에서 인상폭을 좁혀줄 것을 결의하고 제지 및 골판지포장업계에 이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을 계기로 업계 의견차를 확인하고 좁힐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골판지포장조합 전무이사의 제안으로 지합조합 사무실에서 회동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 지합조합 전무이사는 “수급체계상 원가요인을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갖지 못해 큰 폭의 가격인상시 충격의 강도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인상폭이나 시기 등에 있어 재조정하여 지난해 체결한 상생 협력 정신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골판지포장조합 전무이사는 원지나 원단 등 조합원사 제품의 경우 개별기업 스스로의 판단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원지가격이 인상되면 당장의 피해가 골판지포장업계에 미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인상 불가입장이었으나, 8월 들어 원료부족 심화, 원지공급

제한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원지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원인으로 일부 폐지업자들의 탐욕이 폐지가격 폭등과 공급부족을 야기시켜 골판지포장업체와 지함업체를 어렵게 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지가격 인상시기마다 매년 골판지포장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해 왔는데, 이럴 때마다 혐의 없음에도 정작 필요한 회의도 개최하지 못하여 조합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왔음을 상기하고, 향후 고발은 목적 달성도 어려울 뿐 아니라 상호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인 만큼 고발이 아닌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배려로 서로 극복할 것을 주문하였다.

제지조합 전무이사는 이번 인상된 원지가격은 폐지가격이 인상되면서 그에 합당한 수준으로 가격이 연동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설명하고, 지난해 4월 폐지가격이 톤당 15만원일 때 골심지 가격이 톤당 40만원으로 되었던 때에 비하면 현재 38만원 수준은 상생을 고려한 낮은 수준의 가격이라는 설명 등으로 각자의 업계가 처한 상황을 대변하였다.

지함조합은 이번 인상에 대하여 제지조합과 골판지포장조합에 원지가 인상폭, 인상시기 등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9월 21일까지 결과를 알려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제지, 골판지, 지함업체 지도급 대표자회의를 상설모임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함조합의 답변 격으로 골판지포장조합 전무이사는 원지가격의 경우 제지업계에서 판단할 문제로 거래 당사자간 협의할 문제이지만, 제지업체와 마지막까지 설득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이와는 별도로 이번 폭등의 직접적인 주범인 폐지업자의 탐욕을 강력히 규탄할 필요가 있어 일부 매점매석을 일삼는 폐지업자를 색출하여 정부당국에 행정지도 등을 공동으로 요구하자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함업체 등 보다 열악한 경영환경을 갖는 기업 보호 차원에서 『골판지상자 건전거래감시기구』설치를 통해 일관기업의 배려정신을 유도하여 상생화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 조합 뿐 아니라, 고지조합과 제지연합회를 포함한 지류포장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상근 책임자 모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일치시켰다

## 골판지포장기술 과제발굴연구회 출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오진수)은 8월 20일자로 골판지포장기술과제발굴연구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출범한 과제발굴연구회는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업종의 차세대 기술과제를 도출하여 장단기 국가과제로 선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분야별로 과제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골판지포장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골판지포장기술이 대상과제로 선정되었다.



골판지포장조합은 향후 골판지접착 제호기술 향상을 통한 메니옥전분 사용 기술 확보, 저온접착 및 강도향상 첨가제 개발 등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골판지포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판지포장조합은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지난 8월 27일에 개최하였다.

**【기술기획위원 명단】**

- 국민대학교 김형진 교수
- (주)삼보판지 손 권 상무이사
- (주)삼양제넥스 류 훈 책임연구원
- ※ 책임자 : 골판지조합 김진무 전무이사
- 한국화학연구원 류정용 책임연구원
- 태림포장공업(주) 안영찬 부장
- (주)ISO - KOREA 경영연구소 권오진 연구소장
- ※ 실무자 : 골판지조합 신봉호 부장

## 골판지포장업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상자수요업계 협조 요청

최근 골판지포장산업은 구조조정 일환으로 생산설비의 고속광폭화 및 고품질화 방향으로 급진전하면서 다양한 수요자의 Needs에 부응하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만, 부수적으로 과당경쟁에 따른 출혈경쟁의 폐단도 수반되어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은 이래, 수요위축에 따른 수주량 저하는 업계간 과당경쟁을 부르고 출혈경쟁으로 인한 경영안정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원자재인 라이너, 골심지, 마닐라판지 가격이 지중에 따라 25 ~ 40%가량 대폭 인상되고, 전에 없던 전자상거래 유통업자의 거래 개입으로 저부가가치산업인 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유통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있어 골판지포장 수요업계의 골판지포장업계를 위한 건전한 기업환경 조성을 기원합니다.

1. 골판지원지 가격이 최근 25 ~ 40%가량 인상된 만큼의 연동 반영이 필요합니다.

골판지포장업계는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제품 특성상 원자재 가격의 인상은 즉각적인 경영난

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원지가격은 시중 경기와는 상관없이 25 ~ 40%가량 인상되어 제품가격의 연동반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정상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과당경쟁 탓으로 적극 제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디만, 협력업체와의 상생이라는 차원에서 골판지상지 가격에 연동 반영하는 등 어려움을 살피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2. 골판지상지는 부가가치가 매우 낮아 생산자와 수요자의 직거래가 필요합니다.

골판지상지는 원단위에 의한 원가계산의 방식으로 거래가격이 정해지고, 원자재 점유율이 일반 상품과 달리 매우 높아 생산자와 수요자사이에 제 3자가 개입하기 어려운 가격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외형확대 및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골판지상자 B2B를 상자 수요기업에 경쟁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판지상자 직거래 이상의 효과를 기할 수 없으며 귀사의 협력업체인 골판지포장기업의 부실화만을 야기할 것이므로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만큼은 직거래에 의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전자상거래업체들의 개입은 기존 생산자 ⇒수요자 거래 관계를 생산자 ⇒유통 B2B업체 ⇒수요자 관계로 변화시켜 유통비용이 골판지포장기업으로 전가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귀사의 골판지상자 구입시 결코 유통기업인 B2B기업의 개입은 불필요합니다.

## 3. 골판지상자, 구입비용 적정화의 방법은 골판지전문기업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상자 수요업체가 골판지상자를 구입하는 방법으로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 전문기업에서 구입하는 방법과, 지합업체, 유통업체(전자상거래기업), 브로커 등을 통해 구입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판지상자의 품질 기준은 골판지제조 공정에서부터 이루어지며, 골판지상자 가격을 구성하는 것은 원부자재 비용, 제조경비, 노무비, 운반비, 제 이윤이며, 골판지포장기업 이외의 업체에서는 상기의 구성요소에 운반비와 제 이윤이 이중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과 최소 비용으로 구입하려면 골판지 제조설비(코르크레이터)가 있는 골판지포장기업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국제 펄프가격 지속 상승

국제펄프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사카고상품거래소(CME) 발표 자료에 따르면 Soft Wood Pulp 기준 지난 7월 월간평균 649달러가 8월 들어 670달러, 9월 셋째주 들어서는 705달러를 기록하는 등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펄프를 주로 사용하는 KLB와 백상지, 백판지의 경우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